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을 매개효과로

전지경*, 이경아**, 서인덕***
한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대전외국인학교**, 크린 루터리안 고등학교***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on the Ethnical Identity of Third Culture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Ji-Kyung Jeon*, Kyung-Ah Rhee**, In-Doug Seo***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nam University*, TCIS**, Crean Lutheran High School***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동부 버지니아 페어팩스(Fairfax) 카운티 지역과 서부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청소년 혹은 미국시민권을 지니고 있지만 모국이 한국인인 청소년 8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일원분석분석, 상관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민족정체성은 정적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족정체성 하위변인 중 민족정체성 탐색의 경우 가족건강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족소속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가족건강성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한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제3문화 청소년, 민족정체성,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상담, 융복합 정책 접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FS) on the Ethnical Identity(EI) of Third Culture Adolesc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SE) between FS and EI.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6 adolescents from two different regions-Fairfax, Virginia and Irvine, California-who are ethnically Korean and hold either Korean or American citizenship. These analyses were carried out with SPSS 18.0, using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to test the significance of a mediation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S, SE and EI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2. SE mediated the e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FS and EI. 3. SE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S and Exploration, a sub-variable of EI. SE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ffirmation, a sub-variable of EI,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FS. The results discus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make suggestions for a follow-up study for a healthy ethnic identity formation.

Key Words : Third Culture Adolescent, Ethnic Identity, Family Strength, Self-Esteem, Counseling, Convergence Policy approach

Received 2 July 2016, Revised 2 August 2016
Accepted 20 August 2016, Published 28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Ji-Kyung Jeon (Hannam University)
Email: jeonjikyung@gmail.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교통, 통신 등의 급격한 발달로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회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질적인 민족문화를 유지하던 사회에서 국제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1,2], 국가 간 이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접촉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간 경험(cross-cultural experience)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일보[3]에 의하면 2013년에 부모과견동행과 이민방식으로 조기유학에 오른 학생은 1만 539명이며, 교육부에서 제시한 '순수유학생' 1만 2000여명을 합하면 해외로 출국하는 학생들의 수는 22,500여명으로 2003년 10,498명에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Pollock와 Van Reken[4]은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부모의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기의 의미 있는 시기를 보낸 청소년을 제3문화 청소년(Third culture kids)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학교생활이나 학교 밖의 일상생활을 통해 자신의 민족문화와의 차이를 경험한다. Schaetti[5]는 다양한 문화 간 차이에 대한 경험 증가는 현지문화와 자국문화 모두에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발달시키는 반면, 이들 문화 모두에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김석원[6]은 제3문화 청소년으로 자라는 이들이 잦은 이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의 부족으로 모호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들 청소년은 잦은 환경 변화와 이별에 관한 슬픔을 지니며 이로 인한 부정, 분노, 우울, 발달 단계 상의 퇴행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4,7,8,9,10]. 또한 제3문화 청소년들은 성장기에 타 문화권에 거주하면서 '나는 누구인가'하는 정체성의 문제와 잦은 이동과 만남으로 인한 정서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백애경[11]은 제3문화 청소년이 국내나 현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한국인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어느 사회에서도 주류로서 살아 갈 수 없는 국제방랑자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다양한 나라에서의 다문화적 경험이 융통성과 적응력을 키워주며, 세상일에 관하여 폭넓은 식견과 안목, 성숙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해준다[12]는 견해도 있다. 성장시기의 타문화 경험들이 정체성 위기, 정서적

충격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잠재력의 원천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 지구적인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제3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적 경험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6]. 따라서 제3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 경험 속에서 건강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탐색하고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제3문화 청소년의 민족문화에 대한 정체감 형성 역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정체성이란 민족 집단에 소속되면서 가지게 되는 지식, 소속감에 따른 가치와 의미 등으로 생기는 자아개념의 일부이다[13]. 민족정체성은 민족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정체감 혹은 자기감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데 대해 느끼는 감정, 생각, 지각 및 지식을 말하며[14], 개인이 속한 민족 집단에 대한 소속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민족 역사에 대한 지식과 관심, 고유 언어 사용 그리고 고유문화 전통 계승 등을 의미한다[15].

최근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특정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이 포함된 다양한 문화에서의 정체감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민족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으며[16,17,18], 민족정체성을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그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Phinney[19]은 민족정체성을 두 가지 개념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는데, 민족 정체성 탐색과 민족적 소속감 형성이다. 민족정체성 탐색(Ethnic exploration)은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과 연동하여 개인이 행동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학습이나 조사의 과정과 관련된다. 반면, 민족적 소속감(Ethnic affirmation/belonging)은 개인이 민족집단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의미하며, 자부심이나 집단에 대한 헌신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20].

한편 가족, 사회 및 문화라는 외부의 집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1]. 즉, 민족정체성을 탐색하고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세상과 교류하는 개인의 중요한 능력이며, 이러한 민족정체성이 가족, 문화 간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가족의 다양한 특성이 민족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16,22,23,24]. Colette[16]은 가족의 민족적 사회화가 제3문화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과 적응에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가족의 민족적 사회화에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 문화적인 삶의 방식, 감정이나 지식, 언어, 행동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방식, 그 밖에 이웃과의 민족적인 교류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Romero 등 [23]과 Supple 등[24]은 민족정체성 탐색이 가족의 민족적 사회화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인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민족소속감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강한 가족은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응집력이 있어서 가족원 간에 문화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상호작용이 긴밀히 이루어진다 [25]. Colette[16]은 가족이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유대와 애착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족은 인간의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가족의 환경과 그 안에서의 경험은 가족원의 행동이나 인성 특성 및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성원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26]. 김소영[27]은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가족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 형태를 자녀가 학습하게 되면서 내면화된다고 하였다. 권대희와 오윤지[28]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가족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Demo, Small와 Williams[29]도 가족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Chen[30]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보통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감이 고취되어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며,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지도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 지식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31].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모험하는 일이 적고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과 과도한 의존심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며[32], 우울과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난다[33].

특히 제3문화 청소년처럼 언어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환경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소속감이나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소속감과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요구된다. 또한 불확실한 민족정체성을 탐색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해를 돕고 결국 자아존중감이나 자부심 등을 분명히 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룹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제3문화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정체감 혼란이나 부적응을 보이는 한편,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자신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는 등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건강한 가족은 청소년기 자녀가 건강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민족정체성 탐색과 소속감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할 수 있다. 즉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을 매개 변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매개변인으로서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삶을 통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 제3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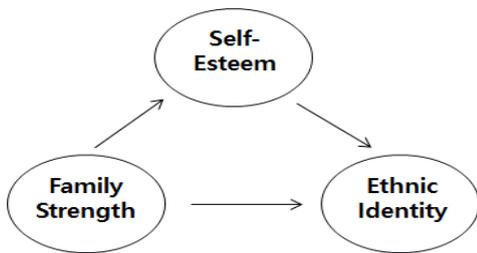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민족정체성의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제3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Fairfax) 카운티 지역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얼바인(Irvine)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지닌 청소년, 혹은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지만 모국이 한국인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자가 총 105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하고 8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고 설문응답 시간은 15~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 수집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설문지에 대한 연구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지에 대한 기념품과 함께 협조요청을 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25일~2016년 4월 20일이었다.

3.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3.2.1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제3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34]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영어문항으로 구성된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Guttman 모델에 근거하여 고안된 것으로 자아존중감을 단일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피험자가 포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측정도구이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Rosenberg[34]의 개발 당시 척도의 Cronbach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척도 전체 Cronbach α 는 .67으로 나타났다.

3.2.2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족 적응력과 응집성 척도(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Scale, FACES III, Olson [35])를 사용하였다.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영어문항으로 구성된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으로 적응력(Adaptation)을 측정하는 문항 10문항, 응집력(Cohesion)을 측정하는 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에게 가족 내에서 얼마나 자주 묘사된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며, 5점 Likert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가족건강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건강성 전체 Cronbach α 는 .86으로 나타났고 척도의 하위요인인 적응력은 .83, 응집력은 .81으로 나타났다.

3.2.3 민족정체성 척도

Phinney[36]에 의해 개발된 민족정체성 척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를 Roberts 등 [37]에 의해 수정 보완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영어문항으로 구성된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족적 정체성의 하위요인으로 민족적 소속감(Commitment)과 탐색(Explor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민족정체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민족정체성 척도 전체의 Cronbach α 는 .86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인 민족적소속감 .802, 민족정체성 탐색은 .680으로 나타났다.

3.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 진행 후 SPSS 18.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첫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민족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38]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 기법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따랐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은 세 단계의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 이때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이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이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판단을 위해 2단계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β)이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

수의 영향(β)보다 커지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되며, 3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유의미하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이것을 완전매개라 하며,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한 경우를 부분매개라 한다.

4. 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민족정체성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86명이었으며, 남자 39명(45.3%), 여자 47명(54.7%)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대상자들의 지역으로는 미국동부가 34명(39.5%),

<Table 1>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participants

(N=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Family Strength			Self-Esteem			Ethnic Identity		
			M	SD	t/F	M	SD	t/F	M	SD	t/F
Gender	Male	39(45.3)	65.97	10.22	.112	27.38	3.66	-.776	35.86	4.62	-2.51*
	Female	47(54.7)	65.69	12.41		27.97	3.42		38.61	5.30	
Region	Western	52(60.5)	64.05	11.80	-1.81	26.65	2.44	-3.67***	36.21	4.54	-2.73**
	Eastern	34(39.5)	68.60	10.28		29.32	4.29		39.24	5.60	
Age	12~15	28(32.6)	68.89	12.23	1.72	29.25	4.21	2.93**	39.14	5.33	2.24*
	16~19	58(67.4)	64.31	10.75		26.96	2.90		36.52	4.90	
Grade	Middle School	32(38.1)	68.37	11.12	1.56	28.75	4.11	2.34*	38.28	5.17	1.15
	High School	54(62.9)	64.35	11.60		26.94	2.93		36.92	5.22	
Years in US	0~4 Yrs.	23(26.7)	64.54	6.57	.18	27.47	3.34	2.13	37.04	4.71	.18
	5~9 Yrs.	26(30.2)	66.23	9.76		26.73	2.70		37.11	4.39	
	10 yrs. and more	37(43.0)	66.29	14.50		28.54	4.00		37.78	5.97	
Years in Korea	Within 1 yr.	34(39.5)	65.02	14.31	.21	28.20	3.79	1.05	37.88	5.86	.61
	2~9 yrs.	18(20.9)	67.22	10.81		28.05	3.26		37.88	5.88	
	10 yrs. and more	34(39.5)	65.82	8.11		27.02	3.37		36.60	3.91	
Nationality	Korea	46(53.5)	67.88	8.32	1.58	27.32	3.32	-1.15	36.82	4.54	-.91
	US	37(43.0)	63.91	14.04		28.21	3.69		37.86	5.74	
Father's Nationality	Korea	62(72.1)	66.11	10.22	.32	27.41	3.39	-1.24	36.45	4.85	-2.69**
	US	21(24.4)	65.14	15.20		28.52	3.86		39.80	5.06	
Mother's Nationality	Korea	68(79.1)	65.98	10.57	.22	27.45	3.24	-1.13	37.00	4.89	-.92
	US	16(18.6)	65.25	15.32		28.56	4.51		38.31	5.92	
English Proficiency Level	Beginning/Intermediate	21(24.4)	67.61	7.91	.45	26.66a	2.59	4.36*	35.80	3.15	2.11
	Advanced	22(25.6)	64.23	7.54		26.59a	3.14		36.72	4.18	
	Fully proficient	43(50.0)	65.72	14.14		28.79b	3.82		38.46	6.12	
Korean Proficiency Level	Beginning/Intermediate	30(34.9)	65.33	12.99	.52	27.73	3.02	.82	36.23	4.88	1.55
	Advanced	26(30.2)	67.69	9.57		28.34	4.02		38.65	5.99	
	Fully proficient	30(34.9)	64.65	11.31		27.13	3.54		37.44	4.52	
Academic	Middle rank	37(43.0)	64.89	9.28	-.64	26.54	2.08	-2.28**	34.94	2.99	4.39***
	High rank	48(55.8)	66.51	12.97		28.64	4.13		39.44	5.63	

***p<.001, **p<.01, *p<.05

미국서부가 52명(60.5%)이었고, 연령은 12~15세 이하가 28명(32.6%), 16세 이상~19세 미만 58명(67.4%)이었다. 또한, 중학생이 32명(38.1%), 고등학생이 54명(62.9%)이었고, 미국거주기간으로는 0~4년이하가 23명(27.7%), 5년 이상~9년 이하가 26명(30.2%), 10년 이상이 37명(43.0%)이었다. 한국거주기간은 1년 이내가 34명(39.5%), 2년 이상 9년 이하가 18명(20.9%), 10년 이상이 34명(39.5%)이었다. 자신의 국적이 한국인 사람은 46명(53.5%), 미국은 37명(43.0%), 부 국적이 한국은 62명(72.1%), 미국은 21명(24.4%), 모 국적이 한국은 68명(79.1%), 미국은 16명(18.6%)이었다. 자신의 영어수준을 초보내지 중급으로 평가한 사람은 21명(24.4%), 상급자 22명(25.6%), 매우 유창한 사람은 43명(50%)이었고, 한국어 수준은 초보 및 중급자 30명(34.9%), 고급자 26명(30.2%), 매우 유창한 사람은 30명(34.9%)였다. 성격은 중간수준은 37명(43.0%)이고 높은 수준은 48명(55.8%)이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민족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동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부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과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학년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인 사람보다 미국인 청소년이 민족정체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거주 기간이나, 미국거주기간, 자신의 국적이나 어머니의 국적, 한국어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2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민족정체성 간의 관계 검증

제 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민족정체성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모든 변인들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r=.401, p<.01$), 민족정체성($r=.377, p<.01$)과 자아존중감은 민족정체성($r=.509, p<.01$)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민족정체성의 하위변인인 민족정체성 탐색은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인 응집성($r=.476, p<.01$), 적응성 ($r=.263, p<.05$) 그리고 자아존중감($r=.491, p<.01$)과 민족적 소속감은 응집성($r=.437, p<.01$), 적응성($r=.125$), 자아존중감($r=.477, p<.01$)과 모두 보통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3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수준이 그들의 민족정체성의 하위요인과 민족정체성 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민족정체성 하위요인인 민족적 소속감은 자아존중감($\beta=.399, p<.001$)이 39.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가족건강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 탐색의 경우, 가족건강성($\beta=.276, p<.01$), 자아존중감($\beta=.368, p<.001$)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 전체에서는 가족건강성($\beta=.212, p<.05$)은 민족정체성의 총 변화량 중 21.2%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beta=.408, p<.001$)은 40.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가족건강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민족정체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variables (N=86)

Measured Variables	1		2		3		
	Cohesion	Adaptability	Family Strength Total	Self-Esteem	Ethnic Identity Exploration	Ethnic Identity Affirmation	Ethnic Identity Total
Cohesion	1						
1 Adaptability	.427**	1					
Family Strength Total	.815**	.872**	1				
2 Self-Esteem	.527**	.188	.401**	1			
Ethnic Identity Exploration	.476**	.263*	.423**	.491**	1		
3 Ethnic Identity Affirmation	.437**	.125	.311**	.477**	.807**	1	
Ethnic Identity Total	.477**	.192	.377**	.509**	.935**	.964**	1

**p<.01, *p<.05

<Table 3> The effects on ethnic identity of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N=86)

Depend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s	B	SE	β	t	R	F	ΔR^2
Ethnic Identity Affirmation	Family Strength	.040	.029	.150	1.405	.480	12.113***	.211
	Self-Esteem	.347	.093	.399	3.748***			
Ethnic Identity Exploration	Family Strength	.056	.021	.275	2.711**	.541	16.948***	.275
	Self-Esteem	.243	.067	.368	3.631***			
Ethnic Identity Total	Family Strength	.095	.046	.212	2.063**	.530	15.851***	.264
	Self-Esteem	.592	.150	.408	3.960***			

***p<.001, **p<.01

<Table 4> Mediating verification of Self-Esteem (N=86)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ΔR^2	F
1	Family Strength	→ Self-Esteem	.123	.031	.401	3.994***	.379	15.949***
2	Family Strength	→ Ethnic Identity	.168	.046	.377	3.687***	.132	13.591***
3	Family Strength	→ Ethnic Identity	.095***	.046	.212	2.063*	.264	15.851***
	Self-Esteem	→ Ethnic Identity	.592***	.150	.408	3.960***		

***p<.001, *p<.05

4.4 자아존중감이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검증

자아존중감이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절차에서 표준화계수와 수정된 R²가 사용되었다.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단계별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beta = .401, p < .001$)을 미쳤다. 2단계에서 가족건강성은 민족정체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beta = .377, p < .001$)였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민족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가족건강성($\beta = .212, p < .05$)과 자아존중감($\beta = .408, p < .001$)은 모두 민족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이 종속변수인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져야 하는데, 3단계에서 유의하게 감소(.377에서 .212로 감소)하여 자아존중감은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Z = 3.957$) Z 값이 +1.96 이상, -1.96 이하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족정체성 하위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결과, 민족정체성 탐색의 경우에는 가족건강과 민족정체성 탐색 간의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민족적 소속감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민족적 소속감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반면, 가족건강성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제3문화 청소년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민족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제3문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간 갈등에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86명의 제3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민족정체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Ruben[39]은 미

국의 이민자 1.5세대를 대상으로 한 민족정체성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통합적인 민족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분석하였고, Water[40] 또한 민족정체성의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민족정체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단일 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감을 형성하기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융통성이 있는 적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과 학년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과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에 자아존중감의 바탕이 형성되고 초등학교 시기동안 안정성을 유지하다가 청소년기에는 안정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41,42]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나 대인관계 능력 면에서 더 점수를 나타낸다는 국내연구[43]와도 유사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시기에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족정체성도 연령과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과 민족정체성이 서로 정적상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년이 민족정체성도 높은 경향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영어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민자 1.5세대를 대상으로 한 Ruben[39]의 연구에서도 영어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사회적 정체감을 연구한 많은 학자[44,45]들이 소수의 민족 청소년들은 다수의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술이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영어수준이 의사소통의 한 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이와 유사한 측면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거주 기간이나, 미국 거주 기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해외거주 후 귀국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오경자, 박경자와 오서진[46]의 논문에서도 해외 거주 기간이나 국내 거주 기간과 문화정체감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민족정체성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3개 변인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강성과 자

아존중감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다양한 연구결과[27,28,29]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강한 가족은 민족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16,22,23,24]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민족정체성의 관련성을 연구한 많은 연구[47,48]에서도 서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이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응집력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반면, 적응력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았다. Olson 등[25]은 응집력은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감정적인 유대로 높은 응집성을 지닌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에 친밀성이 높고, 우리의식이나 전체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가족 내에 응집력이 높은 청소년 가족은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친밀성이 더 많을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민족정체성 형성에서도 부모로부터 세대 간 전수현상이나 가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가족건강성은 민족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aurie와 Hamilton[49]는 민족정체성과 탄력적인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한 가족의 균형은 건강한 개인을 형성하고, 건강한 민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며, 이는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타인도 존중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민족정체성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하위변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민족정체성 탐색과 민족적 소속감 변인 중 민족정체성 탐색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은 민족정체성 탐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민족적 소속감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반면, 가족건강성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다. Phinney와 Ong[20]는 민족정체성 탐색은 가족환경이나 민족그룹 멤버십에 따라 이해되어지는 반면 민족적 소속감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속된 민족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개인의 측면이 더 강조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민족적 소속감은 가족의 영향력보다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3문화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에서 적응하고 민족정체성을 형성해야하는 발달과업을 지니게 되는데, 건강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민족정체성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담자는 제3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여 자신의 건강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 추세로 인한 제3문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내의 다양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3문화 청소년들의 건강한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강한 가족형성과 자아존중감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 및 정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부지역의 제3문화를 경험하는 한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추후에는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연구나 세계 각국의 다양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에 거주하는 모국이 한국인 제3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모국의 제3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민족정체성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적응과 건강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 수 있는 상담, 교육제도 및 정책 등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그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요인들을 활용하여 민족정체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세계화 시대에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정책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1] J. A. Le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civic multiculturalism policy of Canad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15-23, 2015.
- [2] K. S. Noh., J. Y. Lee., & S. T. P, "A study on the development multicultural family business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199-207, 2016.
- [3] Hankookilbo, "Sham statistics on the early study abroad: Estimated to double in fact.", 2014.12.14. <http://www.hankookilbo.com/v/38db595986a04e5194404551895f5a0a>
- [4] Pollock, D. C., & Van Reken, R. E, "The third culture kid - experience : growing up among the worlds". Intercultural Press, 1999.
- [5] Schaetti, B, Global Nomad, "Third culture kid, adult third kid, Third Culture Adult: What do they all mean?" [Electronic version] Aramco ExPats website. 2006, from <http://www.aramcoexpats.com/Commnity/Aramco-Brats/ContentID/1866/Content.aspx>
- [6] S. W. Kim, "The analysis of TCKs' self-identity and the educational counter proposal." Ma.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2008.
- [7] Gilbert, K. R. "Loss and grief between and among cultures: the experience of third culture kids. Illness." *Crisis & Loss*. Vol. 16, No. 2, pp93-109, 2008.
- [8] Hoersting, R. C., & Rae Jenkins, S, "No place to call home: cultural homelessness, self-esteem and cross-cultural ident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35, pp17-30, 2011.
- [9] Mortimer, M. "Adult third culture kids: common themes, relational struggles and therapeutic experiences." Ph. D. dissertation, A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2010.
- [10] Pollock, D. C. "Raising resilient MKs: resources for caregivers, parents, and teachers." in *Being a Third Culture Kid: A Profile*. Ed. Bowers, J. M.,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Colorado Springs, CO, pp45-53, 1998.
- [11] Baek, A. K. "A study on MK(Missionary Kid)'s identity formation- focused on MK living in Seoul-."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0.
- [12] D. Y. Kim, "Missionary kids' education: Limitations and Potentials ". Seoul: Mission Times, December, 1999.
- [13] Tajfel, H.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14] Phinney, J.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on." In K. Chun, P.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63-81. 2003.
- [15] Phinney, J. S., & Rosenthal, D. A. "Ethnic identity in adolescence: Process, context, and outcome." In G. R. Adams, T. P. Gullata, & R. Montemigher (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chapter 4. pp145-172, 1992.
- [16] Colette, S.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among second-generation immigrant adolescents in France: The role of social context and family." *Journal of Adolescence* Vol. 31, pp185-205, 2008.
- [17] Inge, B. W., Maja, D., Sengul. Y., Geert. J. S., & Mariette, D. H. "Ethnic identity,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mong Dutch, Turkish-Dutch and Moroccan-Dutch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31, pp223-240. 2008.
- [18] Joanna, L. W., Patrick, H. T., Myles, I. D., Amir, G. F., & Riana, E. A, "Integrating racial and ethnic identity research into developmental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Vol. 6, No. 3, pp304-311, 2012.
- [19] Phinney, J. S.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pp499-514, 1990.
- [20] Phinney, J. S., & Ong, A. D.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ethnic identit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4, pp271-281, 2007.
- [21] H. N, Suh., & H. N. Ahn, "The effect of ethnic identit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3, pp1037-1052, 2010.
- [22] Myrna. L. 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of internationality adopted children and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25, No. 1, pp43-60, 1999.
- [23] Romero, A. J., & Roberts, R. E.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nd ethnocultural variables in a diverse group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1, No. 6, pp641-656. 1998.
- [24] Supple, A. J., Ghazarian, S. R., Frabutt, J. M., Plunkett, S. W., & Sands, T. "Contextual influences on Latino adolescent ethnic identity and academic outcomes." *Child Development*, Vol. 77, No. 5, pp1427-1433, 2006.
- [25]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Los Angeles: Sage, 1983.
- [26] J. H. Choi, "Self-esteem and familial strength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condary Institute Education*, Vol. 27, pp1-20. 2015.
- [27] S. Y. Kim,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type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96.
- [28] D. H. Kwon, & Y. H. Oh,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Vol 22. No. 1, pp115-127, 2004.
- [29] Demo, D. H., Small, S. A., & Williams, R. C,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8, No. 6, pp1490-1502, 1987.

- [30] Chen, G. M,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vention of the Pacific and Asian Communication Association (Honolulu, HI, January, 1997), 1997.
- [31] S. U. Yoon., & Y. S. Kwon,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91-98, 2015.
- [32] Reasoner, R, "Building self-esteem in secondary schools."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1982.
- [33] J. W. Lee., & K. H. Ka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69-74, 2014.
- [34]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35] Olson, D. H., Joyce P., & Yoav, L,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CES III)."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1985.
- [36] Phinney, J,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7, pp156-176, 1992.
- [37] Roberts, R., Phinney, J., Masse, L., Chen, Y. I., Roberts, C., & Romero, A, "The structure of ethnic Identity in young adolescents from diverse ethnocultural group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9. pp301-322, 1999.
- [38]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1173-1182, 1986.
- [39] Ruben, G. R, "The crucial within :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8, No. 4, pp748-794, 1994.
- [40] Waters, M. C, "The intersection of gender, race and ethnicity in identity development of Caribbean American teens." In *Urban Adolescent girls: Resisting stereotypes*. Ed. B. Leadbeater and N. Wa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In press, 1945.
- [41] Richard, J. B., Sarah, L. G, "self-esteem/ self concept scal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A review",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 10, No. 4, pp190-201, 2005.
- [42] Robertson, J. F., & Simons, R. L,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1, No. 1, pp125-138, 1989.
- [43] E. k. Song,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family communica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ublic speaking Anxiety of Adolescents.", Ph. D.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2013.
- [44] Lafromboise, T., Coleman, H. L. K., & Gerton, J,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4, No. 3, pp394-412, 1993.
- [45] Nguyen, L., & Huang, L. N, "Understanding Asian American youth development: A social ecological perspective." In F. Leong, A. G. Inman, A. Ebreo, L. Yang, L. M. Kinoshita, & M. Fu (Eds.) *Handbook of Asian American Psychology* (2nd ed., pp. 87 - 103.). Thousand Oaks, CA: Sage. 2007.
- [46] Kyung-Ja. Oh., Curie. Park., & Seo-Jin, Oh,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returnees: A study of Korea college students with extended experience of living abroad."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 16, No 2, 125-146, 2010.
- [47] Yiyuan, X., Joann, M. F., & Kristin P,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mong Asian and European Americans : When a minority is the majority and the majority is a minor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45, pp62-76, 2014.
- [48] Phinney, J., & Alipuria, L, "Ethnic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from four ethnic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Vol. 12, pp171 - 183, 1990.

- [49] Laurie, D. M., & Hamilton I, M, "Culture and ethnic identity in family resilience" In Handbook for working with children and youth : pathways to resilience, Michael Ungar Dalhousie University. SAGE Publications, 2004.

전 지 경(Jeon, Ji Kyung)



- 2004년 2월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 석사
- 2011년 8월 : 한남대학교 상담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가족상담, 정신건강
- E-Mail : jeonjikyung@gmail.com

이 경 아(Rhee, Kyung Ah)



- 1996년 2월 :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학사
- 2011년 8월 : 한남대학교 상담학 석사
- 1997년 7월 ~ 현재 : 대전외국인학교 상담교사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학교상담
- E-Mail : rheeka@tcis.or.kr

서 인 덕(Seo, In Doug)



- 2012년 8월 ~ 2013년 11월 : Paul VI Catholic High school in Fairfax, VA
- 2014년 8월 ~ 현재 : Crean Lutheran High School in Irvine, CA
- 관심분야 : 다문화 및 청소년상담
- E-Mail : catrun1@gmail.com